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11. 10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임상현	☎ 760-725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농업정책, 인공지능으로 더 정밀하게…우수성 인정

- 농업기술원, ‘농식품 통계 데이터 + AI 분석·활용 경진대회’ 우수사례 선정 -

- 농업 데이터 필지 단위 정밀 분석으로 맞춤형 농정 기반 마련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이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필지 단위로 정말 분석하고 맞춤형 농업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전국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‘2026년 농식품 통계 데이터 + 인공지능(AI) 분석·활용 경진대회 시상식’에서 ‘인공지능(AI) 기반 핀셋농정으로의 전환’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.

○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농식품 통계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 사례 및 분석 아이디어를 발굴·공유하고, 통계 분석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전국 공모와 전문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총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, 제주는 ‘인공지능(AI)를 활용한 정책활용 우수사례’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농업정책에 접목한 창의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.

□ 우수사례로 선정된 ‘데이터는 필지까지, 정책은 맞춤형으로: 인공지능(AI) 기반 핀셋농정으로의 전환’은 농경지별 경영 여건을 정밀 진단해 개별 농가에 적합한 정책·기술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.

○ 국가 농업통계와 제주 농업경영정보를 실제 경작 필지 단위로 세분화하고, 제주DA의 기상·토양·병해충 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을 연계해 필지별 경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한다.

○ 이를 통해 기존 작물·농가별 평균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개별 농경지의 특성과 경영 여건을 반영한 분석을 실시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정밀 농업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.

□ 제주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(DX)을 농업 인공지능 전환(AX)으로 빠르게 확대하고,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정밀 농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특히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, 인공지능(AI)이 농경지별 특성에 맞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고 필요한 영농활동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농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농업 통계를 평균에서 필지 단위로 세분화하고 인공지능(AI)으로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정책과 기술지원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”며 “앞으로도 농업 데이터의 축적과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혁신에 속도를 내겠다”고 말했다.